

코로나 19시대의 한국교회 교육부 여름 사역 동향 분석 및 만족도 조사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김재우(백석대학교/교수)

jaewookim96@gmail.com

한글 초록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교회에 많은 변화를 끌어냈다. 예배 시간의 변화와 형태뿐만 아니라 목회의 정의 및 방향과 철학까지 재정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의 한국교회는 이것을 위기로 인식하였으나 점차 이것들을 기회로 여기며 긍정적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교육부서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으며 특별히 여름 사역에 있어서 형태와 장소 및 방법은 다른 어떤 교회 행사나 예배보다 극적인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거나 이것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수집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륜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설립한 사단법인 꿈이있는미래 (대표: 김은호 목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던 2020년부터 매년 꿈이있는미래 회원으로 등록된 한국교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여름 사역에 대해 설문문을 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한국교회 여름 사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비슷한 설문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260여 개의 교회가 응답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22년 한국교회 교육부 여름 사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형태로 상당수 회귀 되었다. 상당수 온라인으로 진행되던 2021년과는 달리 81% 이상이 오프라인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외부 캠프를

* 본 논문은 2022년도 백석대학교 대학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진행하거나 참여했다는 응답 역시 31%에 달하였다. 역할의 중요도에서 온라인이 주를 이루던 때는 부모와 교사의 역할을 동등하게 보거나 부모를 강조하지만, 오프라인 행사가 진행된 이번 여름 조사에서는 90%의 응답자가 담당 사역자나 부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름 행사로는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주를 이루었지만, 전체 응답자의 25%가 국내외 선교와 전도를 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다른 사역의 비중 역시 높아졌다. 2021년에 비해 유아부와 유치부, 초등부와 중고등부까지 모든 부서에서 여름 캠프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특별히 유아부와 중고등부에서의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다. 여름 캠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은 콘텐츠와 주제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아이들의 접근성을 주요하게 보는 것은 2021년에 비하여 매우 감소하였다. 여름 캠프를 진행하지 못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관한 기술을 종합한 결과 약 40%가 봉사 인원 부족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코로나19를 원인으로 지목한 30%를 웃도는 수치로 한국교회와 교단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로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본 논문은 각 질문에 대한 세부변화에 대하여서도 언급함으로 2020년부터 2022년에 이르는 여름 캠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주제어 》

코로나19,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 코로나 여름 캠프 영향, 코로나 수련회 영향

I. 들어가는 말

코로나 19 팬더믹 이후 한국교회는 다양성을 갖게 되고 부정적인 것 외에 교회와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긍정적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실제로 성경 읽기와 기도시간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고 바른 영성을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김난예, 2020, 239). 교육부 사역 역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면서 어린 성도들에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제 주순복음교회와 같은 일부 교회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교육부가 부흥하는 상황도 관찰할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어린 성도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하는 논의들이 사역자들과 교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졌고 실제로 2020년 초기에는 단순한 온라인 예배 형태로 시작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다양한 온라인 예배 형태로 진화하였다. 이런 변화는 여름 캠프를 계획하고 진행하는 데도 나타났다. 커리큘럼을 만드는 기독교 교육 기관들은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교회는 어린 성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최선을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캠프를 위해 큰 노력을 하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의미 있는 변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여름 사역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대부분 교회에서 여름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기에 이에 따른 형태나 장소 및 강조점 등의 연구나 분석을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다양성이 드러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교회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 교육부의 여름 사역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코로나19 3년 차인 지금의 한국교회에 마치 중간점검과 같은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까지 있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안타깝게도 이런 주제에 관한 구체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분석한 결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단법인 꿈이있는미래는 한국교회 교육부의 여름 사역에 대한 보고서를 위해 설문을 진행하였고 이미 수집한 2020년과 2021년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비교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인 깊이를 갖고 이 내용을 다루기보단 현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이 어떤 방향과 형태로 변화되었는지 실제적인

것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 연구 분석의 결과를 통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바른 방향과 목적을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II. 이론적 배경

1.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의 교회사역 변화

1) 다양성의 강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교육부는 다양성이 강화되며 많은 대체적 교육방법들이 등장하였다(김재우, 2021). 이 전까지 교육부는 대면 예배와 여름 사역이라는 큰 두 가지 물줄기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창의성과 유연성이 자리 잡게 되었고 김난도의 트랜드코리아 2021에 소개된 피보팅이 진행되었다(김난도, 2020, 222).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수동적 모습을 보이던 교회가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인데, 이전까지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만을 기다렸다면 이제부터는 영상과 짧은 만남의 심방 등으로 더 자주 더 많이 아이들과 성도들에게 다가가려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김재우 외 17명 공저, 2021, 253). 팬데믹 직후인 2020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교회 57%가 현장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한다고 응답하였고 32%는 온라인 예배만 진행한다고 말함으로 방법의 다양성을 통해 성도들에게 다가간다고 볼 수 있었다(박현철, 2020). 교육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으며 위드코로나에 접어든 지금까지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대면 예배와 함께 진행함으로 성도들과의 접촉점을 늘려가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조사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면뿐만 아니라 비대면 예배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2.8%로 대면 예배를 가장 선호한다고 말한 40.2%보다 높게 나타났다(이인창, 2022). 또한, 동일설문 응답자 중 82.8%

는 영적 성장과 제자 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하여 코로나19 팬더믹을 거치면서 변화된 성도들의 인식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교회 교육부의 여름교육부 사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2021년 조사결과 무려 70%가 넘는 교회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름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일변도였던 여름 사역에 기도 모임, 성경 읽기, 전도 축제, 물놀이, 음악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들어오게 되었다(김재우 외 17명 공저, 2021, 264). 말씀을 향한 본질에 대한 열정이 틀과 형식을 벗어버림으로 다양성을 교회 안으로 갖고 오게 된 것이다.

2) 본질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

이 기간에는 본질에 더욱 충실해지기 위한 노력이 성도 개개인에게 일어났다(임상훈, 2020, 303). 개인 기도시간과 성경 읽기 시간이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더욱 늘어났다고 보고하였는데 2021년 6월 조사된 보고서를 보면 성경 읽기 시간이 줄었다고 응답한 성도는 21%인 것에 반해 비슷하거나 늘어났다고 응답한 성도는 각각 39%와 20%에 달했다(박효진, 2021). 이런 현상은 미국과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 헤드라인스는 성경 읽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유버전 앱의 다운로드 횟수가 2020년 코로나 19 팬더믹 이전에 비해 24% 증가했다고 하였고 평일 성경 읽기 참여 역시 10% 이상이 늘어났다고 하였다(김유진, 2021). 또한, 많은 교회들이 2021년 교회 사역의 방향을 성경 말씀 읽기와 기도하기 등으로 세운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대면 예배 시대에 접어들며 개인 영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 사역의 방향이 집회와 예배보다는 성도 스스로 말씀을 보며 신앙을 점검해 보는 쪽으로 세워진 것이다. 이를 볼 때 코로나19 팬더믹은 한국교회에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 반대편에는 성도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신앙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였다.

물론 이런 교회의 노력과 변화들 속에서도 긍정적 결과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과반수의 교회에서 성도의 숫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대한성결교 소속 1000명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무려 58.6%가 성도가 10% 이상 감소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에 따른 헌금도 15% 이상 감소하였다고 답했다(박용미, 2022). 많은 교단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리라 볼 수 있다. 게다가 대면 예배의 약화는 성도 간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독교 신앙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 한국교회 내에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개인적 신앙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위드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들게 되면서 한국교회는 대면 예배와 공동체성의 회복에 따라 성도들의 신앙을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2. 교육부 여름 사역의 변화

앞서 설명한 대로 상당수 교회는 사역의 다변화를 추구하며 코로나19 팬더믹 시대에 적응해갔다. 이는 교육부의 여름 사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300개 이상의 교회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1년 꿈이있는미래 설문자료에 의하면 80% 가까운 응답자가 온라인 혹은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중요도면에서 교사와 사역자보다는 부모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을 밝혔다(김재우 외 17명 공저, 2021, 266). 또한, 교회에서만 진행되던 여름 캠프가 교회와 가정 혹은 가정에서 진행했다는 비율 역시 70%에 달하므로 캠프 장소의 다양성 역시 나타났다. 캠프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한 교회들 역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여 다음 세대에게 제공할 것을 볼 수 있었다(김재우 외 17명 공저, 2021, 265).

여름 사역의 커리큘럼 역시 다양하게 변화하였다. 꿈이있는미래는 한 주제

를 놓고 진행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의 캠프 형태를 제작하여 교회들에 제공하였고 그 외에 다른 기독교 교육기관 역시 다양한 형태의 여름 캠프를 제공하였다. 미국에서 가장 큰 기독교 커리큘럼 기관인 Group에서도 코로나 19 팬데믹 상태에서 어떻게 캠프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캠프 날짜 선정에서도 두 개 정도의 날짜를 선정하여 준비하도록 하거나 VBS at home 옵션을 준비해서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여름 캠프를 진행하는 것도 있다. 또한, 여름이라는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학생들이 가능한 시간에 하는 것 역시 권장하고 있다(Group, 2020). 미국 최대 기독교 커리큘럼 출판사인 Lifeway 역시 비슷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Lifeway, 2020).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교회 사역의 변화는 다양한 형태로 교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분명 코로나19는 한국교회에 위기를 주었지만 대신 사역의 다양성을 추구하도록 하였으며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지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지만 공동체성과 대면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한국교회의 특성상 위드코로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언제든 이런 변화를 버리고 예전으로 회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미 2022년에 접어들면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고 교회 역시 서서히 예전의 형태와 사역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육부 사역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름 사역을 분석해보는 것은 위드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한국교회에 분명 필요한 일이다. 다양한 사역의 변화를 추구했던 한국교회가 2022년을 기점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부 행사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여름 사역을 흐름을 분석하여 한국교회 교육부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자.

III. 연구 방법

1. 설문 참여자

본 설문 조사 및 결과는 오륜교회가 세운 다음 세대 사역 기관인 꿈이있는미래와 공동으로 진행된 것으로 현재 꿈이있는미래 홈페이지에 가입된 8,000명의 사역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 291개의 응답을 받았으며 복수 응답이 온 교회 29개를 제외한 응답은 262개로 정리되었다. 5000~10,000명을 대상으로 할 때 3% 이상의 샘플을 수집해야 한다고 볼 때, 3.3%의 응답률은 이 기준에 적합하여 8,000명의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Yount, 2006, 7-4). 아래의 표는 설문 참여자의 배경을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지역 비율

지역	응답자	누적비율 (%)
서울	61명 (23.2%)	23.2
경기	74명 (28.2%)	51.4
충청권 (대전)	39명 (14.9%)	66.3
전라권 (광주)	33명 (12.8%)	79.1
경상권 (부산, 대구, 울산)	43명 (16.4%)	95.5
기타 (강원, 제주)	12명 (4.5%)	100
계	262명	100

〈표 2〉 설문 응답자의 교회 규모

인원	응답자	누적비율 (%)
50명 미만	102명 (38.9%)	39.8
50~100명	39명 (14.9%)	53.8
100~300명	44명 (16.9%)	70.7
300~500명	26명 (10.1%)	80.8
500~1000명	26명 (9.8%)	90.6
1000명 이상	25명 (9.4%)	100
계	262명	100

〈표 3〉 설문 응답자의 직분

직분	응답자	누적비율 (%)
담임목사	53명 (20.1%)	20.1
부사역자(부목사/전도사)	94명 (35.9%)	56
교사	92명 (35.2%)	91.2
기타	23명 (8.8%)	100
계	262명	100

〈표 4〉 교회 내 교육부 존재 여부 (복수 응답 가능)

부서	응답자	누적비율 (%)
아직 교육부가 없습니다.	15명 (5.3%)	5.3
영아부나 유아부 (5세미만)	147명 (51.9%)	57.2
유치부 (6~7세)	209명 (73.9%)	131.1
초등부 (8~13세)	249명 (88%)	219.1
중고등부 (14~19세)	246명 (86.9%)	300

위의 표들은 응답자들의 교회에 관한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다. 50명 미

만의 교회부터 1000명 이상의 교회까지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50명 미만의 교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은 응답자 교회의 교육부 존재에 관한 것이다. 복수의 응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응답한 95%의 교회에서 교육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결과는 교회 내 교육부가 사라져 간다는 이전의 조사결과와 매우 다른데 설문 대상의 차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꿈이있는미래는 교육기관으로 홈페이지 가입자의 상당수가 어떤 형태로든 교육부가 존재하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즉, 소속 교단 전체의 교육부서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이미 교육부서 운영을 위해 가입한 교회나 회원들에게 설문을 돌렸기 때문에 응답교회의 95%에서 교육부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표 5> 현재 섬기는 부서 (복수응답 가능)

인원	응답자	누적비율 (%)
미취학부	63명 (26%)	26
초등부	127명 (48.3%)	74.3
중고등부	80명 (30.6%)	104.9
청년부/장년부	75명 (28.8%)	133.7
기타	24명 (9%)	142.7

<표 5>는 응답자가 현재 섬기는 부서를 표시한 결과다. 복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누적 비율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응답자의 42.7%가 한 개 이상의 부서를 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에 기술하지는 않았지만, 전체 응답자의 50.2%가 교육부 포함 100명 미만의 교회 소속이라는 것과 사역의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 상당수가 인원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소형 교회의 성도들이 복수의 부서를 섬기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6〉 섬기는 부서의 인원

인원	응답자	누적비율 (%)
10명미만	83명 (31.8%)	31.8
10~30명	88명 (33.6%)	65.4
30~50명	34명 (12.9%)	78.3
30~100명	28명 (10.7%)	89
100명 이상	29명 (11%)	100
계	262명	100

〈표 6〉는 섬기는 부서의 인원을 표시한 것이다. 65.4%의 교회가 부서인원 30명 미만인 것을 볼 수 있다.

2. 설문 내용 및 도구

꿈이있는미래는 코로나19 발병 시기인 2020년부터 올해 2022년까지 지속해서 여름 사역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2020년 5월에는 그해 여름 사역 계획을 조사하였고 2021년에는 2020년 여름 사역에 관한 내용과 2021년 사역에 관한 것을 동시에 진행하였다. 그리고 올해 2022년에 역시 2021년과 유사한 항목으로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꿈이있는미래 홈페이지와 학술지, 콘퍼런스 등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꿈미 교회들에 공유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어떻게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주안점을 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음 해 사역을 조금이라도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매년 진행되는 설문 조사에 의의가 있다. 2021년 설문 결과는 기독교교육정보 69권에 소개되어 있다.

설문의 내용은 교회의 배경을 설명하는 섹션과 2022년 여름 캠프에 대해 평가를 하는 섹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으로 고려하는 사항들과 교육기관으로서 꿈이있는미래가 알기 원하는 내

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꿈이있는미래 소장인 주경훈 목사에게 의해 확인받았다. 제작된 설문은 구글폼으로 작성하여 현재 꿈이있는미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이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로 발송을 하였다. 앞서 설명한 대로 회신율은 약 3.3%로 262개의 유효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다. 각 섹션의 질문은 아래와 같다.

〈표 7〉 설문 내용

섹션	질문
교회 배경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2. 여러분의 교회 이름을 적어주세요. 3. 여러분의 교회 내 직분은 어떻게 되시나요? 4. 아이들을 포함한 교회 전체 출석 인원은 얼마인가요? 5. 여러분의 교회 교육부는 어떤 부서가 있나요? 6.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인가요? 7.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의 인원은 몇 명인가요?
여름 사역 관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022년 올해 여름 캠프/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까? 2. 여러분 교회의 교육부 여름 행사를 모두 선택해주세요. 3. 여러분 교회의 어느 부서가 여름 행사를 진행하였나요? 4. 여러분이 섬기시는 부서의 여름 캠프/수련회 진행방법은 무엇이었나요? 5. 여러분이 섬기시는 부서의 캠프나 수련회는 어디에서 진행하였나요? 6. 여러분이 섬기신 부서의 여름 캠프/수련회 기간은 얼마나 되었나요? 7. 2022년 여름 캠프/수련회를 진행하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8. 2022년 캠프/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려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9. 참석자들의 만족도, 효과는 어땠나요? 10. 여러분의 여름 행사 만족도는 어땠나요? 11. 2022년 캠프/수련회를 진행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2. 성경학교/수련회 외에 기타 다른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진행하였나요?

IV. 설문결과 및 분석

1. 설문결과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하여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2022년 여름 캠프에 대한 분석이다. 총 12개 질문 중 주관식 설문을 제외한 10개의 내용에 대한 2022년 교육부 여름 캠프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코로나 19 팬더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교육부 여름 사역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꿈이있는미래는 코로나19 팬더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 교육부 여름 사역에 관한 설문을 매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문결과를 비교할 수 있다. 매년 같은 설문 내용을 회원들에게 전달한 것은 아니므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차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0년은 여름 사역이 진행되었지만 확인하였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다루지 않았고 2021년부터는 조금 더 다양한 질문들을 넣었다. 2022년은 21년의 질문과 유사하여 21년과 22년의 사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020년과 21년은 각각 383개와 379개의 설문 응답이 있었다. 매년 응답자의 숫자가 다르므로 응답 개수보다는 비율에 집중하여 보도록 한다.

〈표 8〉 여름 캠프의 진행 여부

	2020년	2021년	2022년
진행하였다.	116명 (30.3%)	105명 (27.7%)	211명 (80.7%)
진행하지 않았다.	212명 (55.4%)	78명 (20.6%)	38명 (12.1%)
기타 활동으로 진행	55명 (14.4%)	196명 (51.7%)	13명 (7.1%)
계	383명	379명	262명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하여 줄어들었던 여름 캠프 진행율이 2022년 들어 확실히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의 경우 캠프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을 넘었지만 2021년의 경우 여름 캠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형태로 여름 사역을 진행한 것이 80%에 달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든 2022년은 80% 이상의 교회가 여름 캠프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 캠프를 진행하지 못한 12.1%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40%가 넘는 24명이 재정과 인력의 부족이라고 응답하였고 30%인 14명이 코로나19를 원인으로 들었다. 이를 볼 때 2022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여름 캠프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보다 재정과 인력의 부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9〉 여름 캠프 진행 부서 (복수응답 가능)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2020년	77명 (20%)	172명 (44.8%)	291명 (76%)	154명 (43.2%)
2022년	124명 (47.2%)	174명 (66.5%)	237명 (90.7%)	227명 (86.7%)

여름 캠프 진행 부서는 복수응답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표 9〉가 그 결과다. 2021년에는 위의 설문 질문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하였으며 2020년에 비해 2022년에 모든 부서에서 눈에 띄게 캠프 진행률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특별히 유아부와 중고등부에서 거의 두 배에 가까운 비율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인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부서라고 볼 수 있다. 유아부의 경우 4세 미만이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에 민감했을 것이며, 외부 캠프를 주로 진행하는 중고등부 역시 코로나19 확산에 외부 진행이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2022년에 들어서며 이런 것들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10〉 2022년 교회 내 여름 캠프 내용 (복수응답 가능)

미취학/취학 여름성경학교	208명 (79.3%)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	204명 (77.7%)
국내전도 및 선교	51명 (19.5%)
해외전도 및 선교	21명 (8.2%)
기타 행사 (성경 읽기, 기도 모임 등)	91명 (34.8%)

〈표 10〉은 교회 내 진행된 교육부 행사를 표시하도록 한 결과다. 기존대로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도 성경 읽기와 기도 모임 등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였다. 특별히 국내외 선교 및 해외 선교도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11〉 여름 캠프 진행방법

	2020년	2021년	2022년
오프라인	129명 (33.6%)	83명 (21.8%)	214명 (81.5%)
온라인	120명 (29.2%)	54명 (14.3%)	20명 (7.9%)
온+오프라인	143명 (37.2%)	242명 (63.9%)	28명 (10.6%)
계	383명	379명	262명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까지만 해도 온라인으로 캠프를 진행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에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및 온+오프라인 방식이 비슷한 비율로 나왔으며 2021년은 온오프라인 방식이 63.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워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2022년에는 무려 80%가 넘는 응답자가 여름 사역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대답하였다. 교회와 교육부의 여름 사역 형태가 다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12〉 여름 캠프 진행 장소

	2021년	2022년
교회 내에서 진행	284명 (74.9%)	69.7 (N=183)
외부에서 진행	29명 (7.7%)	30.3 (N=79)
기타	66명 (17.4%)	0 (N=0)
계	379명	262명

〈표 13〉 2022 여름 캠프 진행방법 및 장소

방법	비율	누적비율(%)
자체 프로그램으로 교회 내 진행	96명 (36.6%)	36.6
외부 프로그램으로 교회 내 진행	87명 (33.1%)	69.7
자체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진행	39명 (15%)	84.7
외부 캠프 참석으로 진행	29명 (11%)	95.7
외부 프로그램으로 외부에서 진행	11명 (4.3%)	100
계	262명	100

〈표 12〉와 〈표 13〉는 여름 캠프 진행방법 및 장소에 관한 질문으로 2020년에는 이 항목이 없는 관계로 이번 표에는 제외되어 있다. 교회 내에서 캠프를 진행했다는 대답은 2021년에 비해 22년에 5%에 감소하였으며 외부에서 진행했다는 대답이 2021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표 13〉은 진행 장소와 방법에 대한 좀 더 구체적 질문을 더한 것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외부 프로그램은 파이디온, 히즈쇼, 꿈이있는미래와 같이 외부 기관을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그 결과 교회 내에서 진행한 경우와 하더라도 36.6%의 응답자가 교회 자체프로그램을 갖고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고 응답하였으며 외부에서 캠프를 진행한 경우와 하더라도 15%가 자체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하였다. 즉, 상당수의 교회가 외부 프로그램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프로그램을 통해 여름 캠프를 진행한 것을 볼 수 있다.

〈표 14〉 여름 캠프 진행 기간

	2020년	2021년	2022년
1일	68명 (17.7%)	72명 (19%)	34명 (13%)
2~3일	234명 (61%)	265명 (69.9%)	194명 (73.9%)
4~5일	79명 (20.6%)	34명 (8.9%)	30명 (11.5%)
6일 이상	2명 (0.7%)	8명 (2.1%)	4명 (1.6%)
계	383명	379명	262명

여름 캠프를 몇 일간 진행했는지에 관한 것으로 유아부와 유치부의 경우 연속된 2박 3일로 진행하지 않고 매 주일 캠프를 진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참석자의 캠프 전체 참석일수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주일마다 3주간 진행하였다면 3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는 〈표 15〉에 나타나 있으며 2020년부터 2, 3일이 가장 많은 응답 비율로 대담한 것을 볼 수 있다. 2020년 4~5일 비율이 20.6%에 달하는 것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름 캠프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짧게 자주 모인 것으로 그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15〉 여름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

	2020년	2021년	2022년
부모	108명 (28.2%)	216명 (57.4%)	24명 (9.1%)
교사	140명 (36.6%)	68명 (18%)	148명 (56.5%)
담당사역자/간사	121명 (31.7%)	54명 (14.1%)	85명 (32.4%)
주변 친구들/기타	14명 (3.5%)	40명 (10.5%)	5명 (2%)
계	383명	379명	262명

캠프 주요 역할자에 관한 인식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 2020년에는 부모와 교사, 사역자가 비슷한 비율로 중요성을 보였다면 2021년은 부모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2022년의 경우 교사가 부모의 위치를 대신하였다. 2020

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2021년은 온라인 혹은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캠프로 인하여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오프라인이 주를 이룬 2022년은 교사와 사역자 역할의 중요도가 9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진 것을 볼 수 있다.

〈표 16〉 여름 캠프 준비 시 가장 고려하는 사항

	2021년	2022년
주제나 찬양	43명 (11.3%)	35명 (13.1%)
내용/구성	244명 (64.5%)	189명 (72.1%)
활동 자료집 등 제공자료	33명 (8.7%)	14명 (5.5%)
자료 활용성 및 접근성	41명 (10.9%)	14명 (5.5%)
기타	18명 (4.6%)	10명 (3.8%)
계	379명	262명

캠프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려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응답자들은 2021년 2022년 동일하게 내용과 구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높은 것은 주제나 찬양이며 활동자료 및 제공자료 역시 2021년과 22년 비슷한 중요한 고려요소로 본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차이가 난 것은 자료 활용성 및 접근성의 중요도 변화다. 이것은 참여하는 학생들이 해당 자료나 온라인 콘텐츠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 것인데, 2021년에는 10.9%였지만 2022년에는 5.5%로 그 중요도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역시 오프라인 여름 캠프가 일반화되면서 중요도가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17〉 여름 캠프 만족도 조사

	2020년	2021년	2022년
매우 만족	60명 (15.6%)	122명 (32.3%)	123명 (46.9%)
만족	119명 (31.2%)	142명 (37.5%)	115명 (43.8%)
보통	128명 (33.3%)	83명 (21.8%)	22명 (8.2%)
불만족	65명 (17%)	22명 (5.7%)	2명 (1.2%)
매우 불만족	11명 (2.8%)	10명 (2.7%)	0명 (0%)
계	383명	379명	262명

마지막 설문인 여름 캠프 만족도 조사는 여름 캠프 참여자들이 여름성경 학교나 수련회 등의 행사 등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했는가를 파악한 것이다. 캠프 참여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닌 설문 응답자인 사역자나 교사에 의해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완벽히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2020년에 만족과 보통이 주를 이루었다면 2021년을 통해 매우 만족과 만족이 점점 증가하였고 올해 2022년에는 매우 만족과 만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오프라인 행사로 상당수 교회가 진행을 바꾸게 되면서 이에 따른 만족감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2. 설문 결과 분석 및 설문 의의

본 설문은 참여자들에게 교회 내 여름 행사 진행에 관한 객관적 내용만 담고 있으므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연구나 그룹별 차이점을 연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응답자들에게 여름 사역에 관한 의견이나 평가 등을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설문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에 관해서 기술하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용들을 볼 때, 이처럼 나온 이유에 대하여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첫째, 위드코로나19 시대로의 빠른 전환이다.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실외 마스크 역시 해제가 되며 사회는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중이다. 이는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주일예배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회 내 활동과 훈련 그리고 모임들이 점점 활성화되어가고 있다. 비록 앞서 언급 한 대로 약 20~30%의 성도 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예배나 사역 등은 빠르게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상태로 회복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21.8%밖에 되지 않던 여름 사역의 오프라인 비율이 81.5%까지 올라간 것은 그 대표적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70% 가까운 응답자가 교회 내에서 여름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종합해볼 때, 오프라인으로 여름 사역을 진행한 대부분 교회는 교회 내에서 대면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더는 교회 사역에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음을 말하며 빠른 위드코로나19로의 전환이 위와 같은 결과의 이유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둘째, 온라인 사역의 한계로 인한 오프라인으로의 전환이다. 목회데이터 연구소가 지난 4월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성도들은 온라인 비대면 방식보다 대면 방식의 신앙생활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창, 2022). 온라인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 인식이 42.4%로 부정적 인식보다 16% 월등히 높았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대하여 참여할 의향 역시 2020년 40.6%에서 2022년 51%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 성도들은 대면을 선호하고 비대면의 한계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창, 2022). 특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해서 사역준비를 해야 하는 교육부 사역자와 교사로서는 그 피로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교육부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병행하기보다는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하나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셋째, 부모 사역의 축소는 오프라인전환으로 인한 것이다.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한 2021년 결과와 비교하면 오프라인으로 전환율이 높은 2022년은 사역자와 교사의 중요도 비율이 높게 나왔다. 대면으로 학생들을 이끌어야 하는 대면 사역의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비중을 볼

때 88.9%와 9.1%로 거의 1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은 교회와 가정을 연합하려 하는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도가 높아지는 상황 가운데 나온 아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V. 나가는 말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본 연구는 학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단 사단법인 꿈이있는미래가 가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 부서의 여름 사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결과는 한국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에 시사하는 바는 아래와 같다.

첫째,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설문에 응한 교회 중 80%가 여름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밝혔으며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 그리고 국내외 단기선교까지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눈여겨볼 사항은 여름 캠프의 진행방법으로 80%에 달하는 교회가 오프라인으로만 여름 캠프를 진행했다고 하였으며 2021년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던 온/오프라인 방법은 10%대로 큰 감소율을 보였다. 이것 자체는 긍정적 혹은 부정적 모습을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면 예배만 존재 하며 교회에서 성도와 아이들을 수동적으로 기다렸던 모습으로의 회귀라면 분명 이는 부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분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한국교회에 위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교회에 올 수 없는 성도들을 향하여 다양한 심방, 훈련, 그리고 공동체 모임 방법을 고민하던 시기였다. 또한, 교회 출석에만 집중하던 것에서 말씀과 기도,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시기였기에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교회에 건넨 이런 긍정적 결과물들은 무시한 채 이전으로의 복귀는 한국교회가 피해야 하는 방향이다. 코로나19팬데믹 이전으로 가게 되더라도 이 시기를 겪으며 얻게 된

다양한 지혜로운 방법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둘째, 부모 사역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는 여름 사역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 비중이 상당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 여름 행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주일학교사역자연연구소에서 나온 자료는 교회가 부모 사역에 있어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한다. 2022년 5월 진행된 설문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일학교가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주일 성수와 대면 예배 회복이 38.1%로 가장 높았고 교회와 가정이 연계할 수 있는 교육체계마련이 27.8%, 교사 양성 훈련이 12.7%가 나왔지만,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및 신앙교육의 필요성은 채 5%가 되지 않았다(이인창, 2022). 교회와 가정이 연계되는 것을 중요하게 볼 수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을 이끌 부모의 신앙을 잡아주는 것인데 이 부분이 소홀해지고 있다.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의 핵심이 부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교회 안 상황은 쉽지 않다. 현장예배 참여율 역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대비 50~80% 정도만 회복되었을 뿐이며 이는 교육부 예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침례신문, 2022). 이때 교회가 해야 하는 수많은 일 중 하나는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 보여주었던 열정과 다양한 노력을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다. 분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한국교회에 다양성 추구하고 교회와 말씀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다시 대면 예배와 예전의 행사들이 시작되며 자칫 한국교회와 교육부는 예전의 신앙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거치며 한국교회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이 과정들을 통해 배운 긍정적인 것들만을 취합하여 발전시킴으로 한국교회는 앞으로 더욱 부흥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난예 (2020). **코로나 19를 넘어서는 기독교 교육**. 서울: 동연
[Kim, N. Y. (2020). Christian Education Beyond COVID-19 Seoul: Dongyoen.]
- 김난도, 전미영 외 (2020) **트렌드 코리아 2021**. 서울: 미래의 창
[Kim N. D. (2020) Trend Korea 2021. Seoul: Miraebok.]
- 김난도 외 (2021) **트렌드 코리아 2022**. 서울: 미래의 창
[Kim N. D. (2021) Trend Korea 2022. Seoul: Miraebok.]
- 김성원 (2021). 신앙을 가진 어린이들이 코로나19 시기에 경험한 변화와 바람에 관한 질적연구. **기독교교육논총**, 67, 229-265.
[Kim, S. W. (2021).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xperience and expectations of Christian children regarding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7, 229-265.]
-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Kim, S. 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3, 39-64.]
- 김유진 (2021. 12. 5). 유명 성경앱 매일 성경읽기, 코로나 전 비해 24% 증가. **기독일보**. <https://kr.christianitydaily.com/> 에서 2022년 5월 25일 인출.
[Kim, Y. J. (2021. 12. 5). Famous Bible apps read the Bible every day, 24% more than before COVID-19. *Kukminilbo*.]
- 김재우 (2021). 코로나19 팬더믹이 한국교회 교육부 여름사역에 끼친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 **기독교교육정보**, 69, 247-273.
[Kim, J. W. (2021). Report on the impact of Covid-19 on summer ministry of Korean church.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9, 247-273.]
- 박용미 (2022. 5. 20). 코로나 이후 성도 20% 넘게 줄었다.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46484&code=23111111&cp=nv> 에서 2022년 5월 28일 인출.

[Park, Y. M. (2022. 5. 20). Number of church members has decreased by more than 20 percent since COVID-19. *Kukminilbo*.]

박현철 (2020. 9. 4). 비대면 시대의 온라인 예배, 어디까지 다가왔을까. *뉴스엔조이*.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1312> 에서
2022년 5월 20일 인출.

[Park, H. C. (2020. 9. 4). Online worship in the non-face-to-face era, how far has it come? *Newsjoy*.]

박효진 (2021. 10. 12). 기독교 중고생 32% 코로나 발생 전보다 성경 읽는 시간 줄어.
국민일보.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13106> 에서 2022년 5월
20일 인출.

[Park, H. J. (2021. 10. 12). 32% of Christi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pend less time reading the Bible than before the outbreak of COVID-19. *Kukminilbo*.]

유재덕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8
11-40.

[Yoo, J. D. (2021). Christian education and the post Coronavirus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68, 11-40.]

임상훈 (2020). 비대면 예배 상황에서 동영상 콘텐츠 및 SNS를 활용한 영유아 상호
작용 활동 연구: 유튜브와 카카오톡채널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7,
299-334.

[Lim, S. H. (2020). A study on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s interaction activity based on video content and 눈 in online worship: Focused on Youtube and Kakao Talk channel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67, 299-334.]

Yount, W. R. (2006). **Research Design & Statistical Analysis in Christian Ministry**. Fort Worth: South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Analysis and Satisfaction Survey of Summer Camp
Trends of the Education Ministry of Korean Church in
the 10th Age of COVID-19 : From 2020 to 2022**

Jaewoo Kim

Assistant Professor, Baekseok University

The COVID-19 Pandemic, which began in 2020, has led to many changes in the Korean church. It created a situation in which not only the change and form of worship time, but also the definition, direction, and philosophy of ministry had to be re-established. In the early days of COVID-19 Pandemic, the Korean church recognized this as a crisis, but gradually regarded these as opportunities and tried to produce positive results. The Department of Education has also undergone many changes, especially in its summer ministry, and is expected to have undergone more dramatic changes in form, location and method than in any other church event or service. However, no accurate data on this has been collected. Accordingly, Mirae with Dreams (CEO: Pastor Kim Eun-ho), a corporation established by the Oryun Church for the next generation of ministry, conducted a survey on the summer ministry of the Korean church, which has been registered as a future member with dreams every year since 2020 when the COVID-19 pandemic began. A similar survey was conducted in 2022 following 2021, and 260 churches responded,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2022, the summer ministry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Korean Church returned to the form before the COVID-19 Pandemic. Unlike 2021, when many of them were held online, more than 81 percent said they had conducted summer camps offline, and 31 percent also conducted or attended outdoor camps. In terms of the importance of roles, when online was also the main focus, parents and teachers were equally

viewed or emphasized, while in this summer's survey, 90 percent of respondents said that the role of teachers in charge or department was important. Summer events were mainly summer Bible schools and retreats, but 25% of all respondents said they conducted missionary work and evangelism at home and abroad. Compared to 2021, participation in summer camps has increased in all departments, including infant and kindergart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and especially in infant and middle school. While preparing for the summer camp, most of the respondents said that the focus was on content and topics, and the main focus was on children's accessibility compared to 2021. As a result of synthesizing the description of the reason for the respondents who could not conduct the summer camp, about 40% said they could not conduct the summer camp due to a lack of volunteers. This is more than 30% who pointed out COVID-19 as the cause, which can be seen as an urgent problem to be solved at the Korean church and denomination level. In addition, this paper also mentioned detailed changes in each question, referring to the changes in summer camps from 2020 to 2022.

《 **Keywords** 》

COVID-19, Summer Bible School, Summer Training, Influence of COVID-19 Summer Camp, Influence of COVID-19

- 투고접수일 : 2022년 9월 6일
- 심사완료일 : 2022년 9월 28일
- 게재확정일 : 2022년 9월 29일